

## #1. 개인 주택 [아침/안]

아침이 밝아오는 이주민 가정이 많은 동네 마을  
침실에서 아직도 깊은 잠을 자고 있는 한 남자  
하지만, 누군가가 방 문을 열면서 들어온다.

한준호: 음나.. 더 자고싶어..

추선영: 애!! 어서 일어나지 못해?!

한준호: 엄마, 나 조금 더 자면 안돼..?

나 너무 피곤해서 말이야...

추선영: 오늘 월요일인데 아직도 자면 어찌자는거야..?!

한준호: 알겠어, 이제 일어났으니까 재촉 쫘 하지만

머리를 긁적이며 일어나는 한준호

그를 마다하지 못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엄마

그는 화장실로 들어가며 양치를 한다.

한준호: 조금 더 자고싶었는데...

추선영: 빨리 씻고 나와서 밥 먹어

한준호: 알겠어

양치를 끝낸 이후 세수를 하며 화장실에서 나와 밥을 먹는다.

한준호: 아, 엄마! 나 지각이잖아

추선영: 누가 그러길래 늦잠 자랬어?!

한준호: 알겠어...

밥을 다 먹은 이후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매고 집 현관문을 연다.

뒤돌아 엄마한테 마중 인사를 한 이후 일어난다.

한준호: 나 학교 갔다올게~

추선영: 차 조심하고 잘 갔다오렴~

엄마가 아들에게 밝은 미소로 웃으며 손을 흔든다.

## #2. 버스정류장 역 근처

차들이 지나치며 이어폰을 착용한 채 걷는다.

역 앞에 도착하여 버스를 기다린다.

한준호: 으~ 추워 죽겠네..

오늘도 학교 가서 수업 들어하다니, 정말 싫다

그때 어느 한 청년이 그의 앞을 걸어오며 손을 흔든다.

최시호: 야 여기서 버스 기다리냐?

한준호: 어

그나저나 너는 어째서 다문화 애들이 다니는 국제학교에 온거임?

최시호: 그야, 우리는 초딩때부터 친구였으니 따라왔지

쓴 웃음을 지으며 준호의 어깨를 살짝 민다.

한준호: 너는 아직도 내가 좋냐?

최시호: 글썸? 거기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네

버스 안내판 앞에 학교로 가는 버스가 그들 사이 앞으로 온다.

한준호: 버스나 타자

버스를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서 창문을 바라보는 준호

버스 안내 방송을 바라보다 폰을 만지는 시호

최시호: 학교 자퇴하고 유튜버나 하고싶다~

한준호: 푸흠

야 중졸은 공장 말고는 안 받아준다

최시호: 어찌라고

버스 안내 방송이 학교 근처라는 것을 알리자

벨을 누르며 좌석에서 일어나서 문 앞에 대기한다.

할머니: 학생들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이 최고예요~

최시호: 예

한준호: 알겠습니다

마을 할머니와 같이 버스를 내리며 학교로 걸어가는 준호와 시호

학교 정문 앞을 기다리는 형우 선생님

덕형우: 3.. 2.. 1.. 땡

지금부터 등교하는 애들은 지각이다

학교 경비원: 좋은 아침입니다~

덕형우: 아, 경비원 아저씨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

학교 경비원: 아~ 형우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

덕형우: 별 말씀은요

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 보람차다고 느껴집니다

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형우 선생님과 경비원 아저씨

#3. 학교 정문 앞 근처

한준호: 야, 너가 이상한 말해서 지각했잖아

최시호: 뭐래, 너가 신경 안 써서 지각했으면서

왜 나한테 성질이나

학교 정문 앞까지 뛰어가는 준호와 시호

정문 앞까지 뛰어오는 학생들을 붙잡는 준호

덕형우: 거기 너희 둘은 지각이니 점심시간에 교무실에 찾아와라

한준호: 아. 결국 지각해버렸네

최시호: 알겠습니다

교문 안 쪽 학교 안으로 등교하며 교실로 들어가는 준호와 시호

윤서가 교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더니 말을 건다.

이윤서: 너희들 이제 학교에 도착한거야?

한준호: 이녀석때매 지각한거다

최시호: 야, 넌 왜 방금전부터 나한테만 책임 전가하나?

한준호: 왜? 난 사실만 말한거다

준호와 시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언성을 높혀 서로를 친다.

그 환경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자리로 간 윤서

그때 수업 종이 울리자 교문이 열리자 학생들이 제자리로 가며

형우 선생님이 천천히 교실 안으로 들어온다.

덕형우: 자, 애들아

다들 교과서 피고 수업하자

학생들: 네~

칠판 앞에서 형우 선생님이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 
수업을 무시하며 떠들거나 과자를 섭취하며 수면하는 학생들

이윤서: 역시 남자애들은 시끄럽네~

최시호: 너희 여자애들도 쉬는 시간에 화장하잖아?!

한준호: 에휴, 잠이나 자야겠다

조용히 둘에 관계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자고 있는 준호

학생들을 바라보다 언성을 높여서 말하는 형우 선생님

덕형우: 다들 조용해(영어)

애들아 수업해야지~

갑자기 형우 선생님에게 말을 거는 일진 무리

일진들: 선생님 어떻게 영어 실력이 그리 유창하세요?

덕형우: 쌤이 말 안했나?

내가 이래봐도 미국 혼혈이라서 미국으로 유학 간 적이 있어

일진들: 오~ 유학파 선생~

다들 박수 치며 웃는 일진들과 다른 학생들

한준호: 으음..? 왜이리 시끄러워

눈을 비비듯 잠에서 깨어나는 준호

윤서와 준호에게 통지문을 주는 형우 선생님

덕형우: 너희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지?

방학동안 거기 가면 좋은 캠프가 될꺼다

이윤서: 쌤, 제가 아무리 다문화여도 여기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

덕형우: 그래? 가기 싫으면 안가도 되

점심시간이 되자 종이 울리면서 급식실로 뛰어가는 학생들

#### #4. 학교 위클래스 교실 안

조용히 아이들에 심리 상태를 조사하는 동시

교실 문이 열리자 윤서를 바라보는 지원 선생님

임지원: 윤서야 무슨 일로 온거야?

이윤서: 그냥 생각할 고민이 있어서 온겁니다

임지원: 그래?

천천히 생각하고 교실로 가보렴~

이윤서: 네~

위클래스 교실 문이 열리더니 시호가 들어온다.

최시호: 쌤, 혹시 여기에 윤서 있나요?

임지원: 응, 지금 고민중이라니 나중에 와줄래?

최시호: 아..

나중에 오겠습니다

조용히 나가더니 교실 문을 닫는 시호와 웃는 지원

윤서에게 걸어가서 말을 거는 지원 선생님

임지원: 어떤 일로 여기에 온거야?

이윤서: 사실 그게...

이거 때문입니다.

다문화 통지문을 지원 선생님에게 건넨 윤서

임지원: 이걸..?!

이윤서: 보신 그대로 다문화 캠프 통지문입니다

쓴 웃음 지으며 윤서를 바라보는 지원 선생님

임지원: 쌤도 싱가포르 혼혈이야

그래서 학창시절때 왕따였는데 다문화 캠프가서 여러 친구 만들었어

이윤서: 그렇군요..

임지원: 너는 어찌고싶어?

이윤서: 잘 모르겠어요..

임지원: 그렇다면 잘 생각해봐

이윤서: 네

#5. 학교 강당 안 근처

농구하는 소리가 들리자 강당 안으로 들어가는 준호

신나게 뛰며 운동하는 성준과 효정

황성준: 나한테 공을 넘겨

신효정: 네, 오빠

농구공을 성준에게 던지며 준호를 보는 효정

농구공을 받고 준호에게 걸어가는 성준

황성준: 너도 농구할려고 온거야?

한준호: 어

그리고 형이랑 민정이는 다문화 캠프 갈꺼야?

황성준: 나랑 효정이는 운동한다고 갈 생각이 없어

신효정: 음...

전 가고싶었지만 그냥 학교 애들이랑 노는게 편해요

한준호: 그렇구나...

황성준: 자, 너도 같이 운동하자

살빼야지

한준호: 알겠습니다~

점심시간에 강당에서 운동하는 성준과 효정과 준호

#6. 학교 독서실 안

독서실에서 책을 읽으며 보충 수업하는 예술과 일홍

책꽂이에서 소설책 한권을 꺼내서 옆에서 읽는 시호

예술에게 조심히 말을 건네면서 책을 읽는 시호

최시호: 누나도 다문화 가정일텐데 다문화 통지문 어찌하셨어요?

배예술: 난 좋은 대학 가야해서 지금 수험 보느라 못 가

최시호: 그렇구나...

그럼, 너는 갈꺼야?

남일홍: 난 그렇게 사람 많은 곳은 별로 안 좋아해

최시호: 너도 안 갈 생각이구나

배예술: 너 일부로 이거 물어볼려고 왔어?

최시호: 으음..

다시는 안 오겠습니다..

배예슬: 괜찮아

그나저나 다른 애들은 캠프 간대?

최시호: 모르겠네요..

배예슬: 그래? 알겠어

#7. 하룻길 근처 편의점

오후 수업을 듣고나서 끝나자 종례 하러 교실로 들어온 형우 선생님

덕형우: 준호와 시호는 점심시간에 안 왔으니 별점이다

그리고 나중에 야간 수업 들어라

한준호: 죄송합니다..

최시호: 알겠습니다..

이운서: 푸흠..

종례가 끝나자 학교에서 나오며 근처 편의점에 들린다.

편의점 알바생: 안녕하세요

웃으며 손님들에게 웃는 편의점 알바생

맛있게 라면과 빵을 먹는 대근과 나연

백대근: 역시, 학교 끝나고 여기서 간식거리 먹는게 최고지않냐?

윤나연: 니 말이 맞는 듯

나연과 대근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시호와 윤서

최시호: 너희들은 내일이 방학식인데 편의점에서 간식 먹는거야?

백대근: 동물들도 밥 먹을때는 말 걸지 않습니다

제발 먹을때는 말 걸지마세요

최시호: 이 자식이?!

그나저나 너희들은 다문화 캠프 갈꺼야?

백대근: 전 먹을꺼 말고 별 생각이 없어서 안갑니다

최시호: 너는?

지긋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호와 나연

윤나연: 전 궁금해서 갔다올려고요~

최시호: 그래?

편의점에서 초코 우유를 구매하여 마시는 준호

한준호: 역시 맛있네~

최시호: 야 너까지 먹을거 찾냐?

이운서: 난 역시 안갈련다

한준호: 그래?

최시호: 왜?

이운서: 이유 없어

그냥 가기 싫어졌어

최시호: 그렇구나~

편의점에서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준호와 시호

지하철을 탑승하여 서로 각자의 집으로 가는 윤서